

화순 ‘공정식 전국 가요제’ 성황리 개최

내달 18일 오후 4시 TV조선 방영 예정

화순군은 지난 19일 토요일 16시 화순 공설운동장 특설무대에서 ‘2025 공정식 전국 가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식 전국 가요제’는 가수 김용인의 ‘부초같은 인생’, ‘적벽 가는 길’ 등을 작곡한 화순 동면 출신인 공정식 작곡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가요제이다.

신인가수 등용문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는 TV조선 ‘싱코리아’ 녹화 방영으로 큰 관심을 불러 모은 가운데, 본선 진출자 14개 팀이 기량을 선보였다.

16시부터 진행된 공정식 전국 가요제 1부에서는 난타, 댄스, 가요 무대 등 축하공연으로 관객들의 흥을 북돋웠으며, 이후 18시 30분부터 진행된 공정식 전국 가요제 2부에서는

본선 진출자 14개 팀의 열창과 김용임, 김용필, 신성, 강예슬, 빈에서, 임금남 등 초대 가수들의 축하공연으로 가요제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본선에서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인기상, 화순 11경 상, 특별상을 선발했으며, 수상자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가요제의 녹화본은 오는 5월 18일 16시 TV조선 ‘싱코리아’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정식 전국 가요제에 전국의 실력자들이 많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풍성한 무대로 화합의 장이 만들어져 기쁘다”라며, “오는 5월 18일 방영되는 싱코리아 공정식 전국 가요제 방송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함평, 나비대축제 맛이 불가안정 캠페인

불공정 행위 근절...바가지 없는 공정 거래 질서 확립

함평군이 지역축제를 앞두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함평군은 23일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군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전날 함평천지전통시장 일원에서 불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불가안정 분위기 조성 ▲불공정행위 근절(바가지요금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독려 ▲함평 사랑상품권 및 공공배달앱 ‘떡깨비’ 가맹점 가입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축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함평군은 물가모니터링 요원을 상시 운영해 지역 물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지역축제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상생하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지대만 기자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9월 12일로 연기

대통령 선거 일정 고려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추진위원회는 5월 16일부터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5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를 9월 12일부터 14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회진면 회진항 물양장에서 개최되는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연기가 결정됐다.

장흥군과 축제 추진위원회는 선거

와 축제가 중복될 경우 선거법 준수, 지역 행정력 분산 및 안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연기된 일정 속에 더욱 내실있게 축제를 준비 할 것”이라며, “장흥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 마하수·정경달 장군과 이름없는 민초들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이번 주말 장성 북하면 산나물축제 가자!”

26~27일, 장성호관광지·단전리 일원서 개최

741인분 비빔밥 퍼포먼스·공연 등 행사 다채

장성군 북하면이 산나물 산지로 유명했던 지역의 역사성과 개성을 살린 마을축제를 선보인다.

‘제1회 북쪽하늘아래 산나물축제(이하 산나물축제)’가 오는 26~27일 이틀간 장성호관광지와 북하면 단전리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의 주무대는 장성호관광지(북하면 쌍용리 273)다. 첫날에는 장성국악협회의 풍물놀이와 초대 가수 공연, 아코디언·통기타·색소폰 연주, 노래자랑, 건강댄스 등이 다채

롭게 진행된다.

1970년대 장성호 조성과 함께 수몰된 북상면 향우들을 위한 ‘제12회 옛 북상면민 만남의 날’ 등 뜻깊은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틀날인 27일에도 초대 가수의 무대와 레크리에이션, 각설이 공연, 노래자랑 등 흥겨운 순서들이 이어진다.

점심 시간을 앞두고선 북하면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741인분 비빔밥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741’은



북하면 백암산의 최정상인 상왕봉 높이(741m)에서 착안했다.

산나물 체험행사는 26일 하루 동안 북하면 단전리(527번지)에서 열

린다. 먼저, 장성호관광지 주무대에서 체험을 신청한 뒤 3000원, 5000원 두 종류로 마련된 봉투를 구입해 체험지로 이동하면 된다.

박종렬 북하면 축제추진위원장은 “마을 주민들이 지난해부터 조성한 산나물 재배 장소에서 직접 나물을 채취해 가져가는 행사”라며 “청정 자연을 벗 삼아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민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산나물축제가 북하면 관광 활성화와 산나물 산지의 명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다. /장성=실재식 기자

“담양을 뉴스로 기록하다” 담양군민이 직접 홍보 나선다

대나무축제 현장 누비는 ‘담양홍보기자단’...언론홍보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025 담양대나무축제’를 앞두고, 담양군민들이 직접 홍보에 나섰다. 축제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생산하는 ‘담양홍보기자단’은 올해도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담양홍보기자단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의 언론홍보 전문가 양성 교육(홍보디렉터 과정)을 수료한 군민, 귀농·귀촌인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기자단이다. 현재 약 30여 명의 구성원이 활동 중이며, 지역 소식과 축제

현장을 직접 취재해 뉴스 콘텐츠로 생산, 포털사이트 등에 송고하고 있다.

작년 제23회 대나무축제에서도 기자단은 총 148건의 기사를 생산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축제 구경하러 왔다가 뉴스에 나오는 행운을 얻었다”, “가족과의 추억이 뉴스로 남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며 호응을 보였다.

올해 제24회 대나무축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죽녹원 일대에서 5

일간 개최되며, 홍보기자단의 두 번째 단체 봉사활동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들은 축제 현장에서 관광객들을 인터뷰하고, 기사로 작성한 후 프린트 및 코팅된 기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경 기자단장은 “농촌에 살면서 글을 쓰는 일은 인생의 행복을 세 배로 높이는 변화”라며, 기자단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다.

/담양=강성국 기자

영광, 군민과 약속 지킨다... ‘공약실천 조례’ 제정 나서

민선 8기 ‘공약실천 조례’ 입법 예고

영광군이 군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이하 ‘공약실천 조례’를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는 공약사업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약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 수립·변경 절차 명문화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공약 이행 현황 공개 의무화 ▲이행 실적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영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광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감감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약 추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군수실에 공약 이행 현황판을 설치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5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약이행 실천 교육(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 군수는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며 군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청춘신작로

버스킹 참가자 모집

화순군은 ‘2025년 청춘신작로 버스킹 공연을 펼칠 재능 있는 참가자 및 단체를 오는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버스킹 공연은 5월 16일(금)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7세부터 30세까지의 개인 또는 단체로 대중가요·밴드·싱어송라이터 등 버스킹 공연뿐 아니라 자유 발언이 가능한 5분 자유스피치 분야도 신설돼 참여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단, 상업·정치·종교적 내용은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화순군청 및 청춘들락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30초 이내의 연습 또는 공연영상 및 자유스피치 발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과한 공연 참가자에 대한 사례비는 ▶초등학생 1인당 3만 원, 최대 30만 원, ▶중·고등학생은 1인당 5만 원, 최대 35만 원이며 ▶대학생 및 일반인은 1인당 10만 원, 최대 50만 원이다. 광주·화순 외 지역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교통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춘신작로 버스킹은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리 공연이다. 전국에서 끼가 넘치는 청년들이 무대에 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